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인식에 관한 연구*

양 문 수** · 이 우 영*** · 이 하 연****

I. 머리말
II. 연구의 설계

III. 연구의 결과
IV. 맺음말

국문요약

이 글은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인식을 체계적으로 파악, 정리하는데 목적을 둔다. 남북한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 양적 분석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룬다. 다만 현재의 여건상 북한주민을 직접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로 대신한다.

남북한주민의 상호인식, 즉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 T검정에서 전체 문항(24개)의 7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북한 주민의 특성에 관한 상호인식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24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해서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를 토대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남한주민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부정적 요인 2개, 긍정적 요인 1개, 중립적 요인 1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반면 북한주민의 경우, 부정적 요인 2개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요컨대 집단에 대한 인식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내/외집단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북한주민보다는 남한주민이 훨씬 컸지만, 상대방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국한시켜 보면 내/외집단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큰 것은 남한주민이나 북한주민이나 다르지 않았다.

또한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에서,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타났다. 반면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대조를 이루었다.

아울러 남북한주민들은 상대방과 사회적 관계(결혼 상대, 세입자, 친구, 동료)를 맺는 데 대한 태도의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모든 범주에서 상대방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대해 남한주민은 북한주민보다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대집단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관계에 대해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을 비교해 보면 남한주민은 북한주민보다 상대집단의 특성에 관한 인식이 상대집단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대한 태도에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주민은 남한주민의 특성에 대한 인식이 남한주민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대한 태도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제어: 남한주민,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 상호인식, 태도, 사회적 관계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017S1A3A2065782).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I. 머리말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의 통합’¹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독일, 예멘 등 분단국 통일의 역사적 경험은 주민 간 ‘마음의 통합’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제도적 통합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사실 통일이란 한순간의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통합되어 가는 장기적인 과정이다. 여기에서 주민 간의 ‘마음의 통합’은 분단 극복의 미시적 기초인 동시에 체제 통합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필수적 조건이다.

남북한 주민의 마음 통합을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분단 이후 남북한이 오랜 기간 상이한 여건 속에서 형성해 온 마음에 대한 심층적 이해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남북한 주민의 마음 전부를 다루는 것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남북한 주민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즉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남북한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 양적 분석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조사에서는 현실적 장벽과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의 여건상 북한주민의 인식을 직접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그리고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대부분 중첩되어 있다. 이러한 장벽과 한계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이 글의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마음에 대한 우리 사회 논의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객관성·실증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II. 연구의 설계

1. 설문조사 개요 및 조사대상자 특성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2018년 7~8월에 전문

¹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마음’이라는 용어는 학문의 영역으로 편입되었을 때 그 개념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발생한다. 이 글의 문제의식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남북한 주민의 ‘마음’ 및 ‘마음의 통합’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우영 외, 『분단된 마음 잇기: 남북의 접촉시대』(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6), 제 1부 제 1장을 참조.

조사기관에 의뢰해 남한주민 500명, 북한이탈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²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남한주민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각각 50%인 것을 비롯해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편차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은 성별로는 여성(82%)이 남성(18%)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북한당시 거주지역으로는 함경남북도가 70.4%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요컨대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이 다소 편중된 구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 따라서 샘플의 대표성에 다소 취약성이 있다는 점은 사전에 충분히 인식될 필요가 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변인	내용	남한주민 빈도 및 비율	북한주민 빈도 및 비율
성별	남자	250(50.0)	45(18.0)
	여자	250(50.0)	205(82.0)
	합계	500(100.0)	250(100.0)
연령	20대	90(18.0)	9(3.6)
	30대	100(20.0)	22(8.8)
	40대	101(20.2)	55(22.0)
	50대	101(20.2)	60(24.0)
	60대 이상	108(21.6)	104(41.6)
	합계	500(100.0)	250(100.0)
학력 (북한주민은 재북당시)	중학교 졸업 이하	5(1.0)	8(3.2)
	고등학교 중퇴/졸업	3(0.6)	169(67.6)
	전문대 및 대학교 중퇴/졸업	447(89.4)	60(24.0)
	기타	45(9.0)	13(5.2)
	합계	500(100.0)	250(100.0)
경제적 계층 (북한주민은 재북당시)	최상층	3(0.6)	3(1.2)
	상층	24(4.8)	20(8.0)
	중간층	295(59.0)	110(44.0)
	하층	158(31.6)	80(32.0)
	최하층	20(4.0)	37(14.8)
	합계	500(100.0)	250(100.0)

²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는 필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북한대학원대학교 SSK 남 북한 마음의 통합 연구센터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변인	내용	남한주민 빈도 및 비율	북한주민 빈도 및 비율
거주지역 (남한주민)	서울시	179(35.8)	
	경기도	117(23.4)	
	기타 지역	204(40.8)	
	합계	500(100.0)	
거주지역 (북한주민)	평양시		12(4.8)
	평안남북도		10(4.0)
	함경남북도		176(70.4)
	황해남북도		9(3.6)
	강원도		3(1.2)
	자강도		2(0.8)
	양강도		35(14.0)
	라선시, 남포시, 개성시		3(1.2)
합계		250(100.0)	
직업 (남한주민)	자영업/개인사업	53(10.6)	
	생산직/기능직 근로자	30(6.0)	
	판매/서비스직 근로자	28(5.6)	
	사무직 근로자	153(30.6)	
	관리직, 전문직	69(13.8)	
	가정주부	75(15.0)	
	학생	29(5.8)	
	무직, 퇴직, 기타	63(12.6)	
	합계	500(100.0)	
결혼 여부	결혼	298(59.6)	107(42.8)
	미혼	175(35.0)	71(28.4)
	기타	27(5.4)	72(28.8)
	합계	500(100.0)	250(100.0)
종교 (남한주민)	개신교	104(20.8)	
	천주교	56(11.2)	
	불교	83(16.6)	
	없음	257(51.4)	
합계	500(100.0)		
탈북년도	1996~2000년		59(23.7)
	2001~2005년		71(28.5)
	2006~2010년		74(29.7)
	2011~2016년		45(18.1)
	합계		249(100.0)

변인	내용	남한주민 빈도 및 비율	북한주민 빈도 및 비율
정치적 입장	매우 진보적	16(3.2)	34(13.6)
	약간 진보적	124(24.8)	41(16.4)
	중도	252(50.4)	116(46.4)
	약간 보수적	90(18.0)	34(13.6)
	매우 보수적	18(3.6)	25(10.0)
	합계	500(100.0)	250(100.0)
당원 여부 (북한주민)	당원		54(21.6)
	비당원		194(77.6)
	출당		2(0.8)
	합계		250(100.0)

2. 측정도구: 조사항목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 우선 남북한 주민이 자신의 집단 및 상대방 집단의 특성에 대해 가지는 인식 혹은 고정관념을 조사했다. 남한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주민은 외집단이며, 북한주민 입장에서 보면 남한주민은 외집단이다. 즉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은 남북한주민이 각각 외집단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가리킨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이 외집단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내집단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비교하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개별 국가 국민의 특성으로 선정된 24개의 형용사로 구성된 문항들을 사용했다. 김혜숙·오승섭(1999)에서는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외국인들의 특성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조사할 때 활용되었으며, 김혜숙(2002)에서는 남한 대학생들의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사할 때 사용된 바 있다. 이들 24개 문항의 개별 형용사들(예컨대 “권위주의적이다,” “부지런하다”)이 얼마나 남북한 주민들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지 리커트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했다.³

아울러 남북한 주민이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수용 수준을 조사했다. 이는 흔히 사회적 관계라고도 하는데 보통 사회적 거리로 측정한다. 사회적 거리는 Bogardus

³ 김혜숙·오승섭, “북한 사람에 대한 대학생과 일반인의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 비교.” 『심리과학』, 제8권 1호 (1999), 김혜숙,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6권 2호 (2000).

(1925)가 고안한 개념으로서 특정 집단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거리감을 말한다. 이는 인식이라기보다는 태도의 영역에 속하는데 인식이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사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 개념으로 측정된 4개 문항으로서 각 문항은 남한주민은 북한주민을, 북한주민은 남한주민을 각각 △가까운 가족과의 결혼 대상자, △자신의 집의 세입자, △단짝 친구, △직장 동료로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아니다(1) ~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했다.

III. 연구의 결과

1. 남북한주민의 상호인식 1: 24개 문항에 대한 비교

이제부터는 남북한주민의 특성에 관한 상호인식을 간단한 통계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남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두 집단간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했다(표 2 참조). 그 결과 24개 문항 가운데 무려 22개 문항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차이를 확인할 수 없는 문항은 단 2개(“지배적이다”, “음흉하다”)에 불과했다.

인식 차이의 정도를 문항별 평균점수를 통해 살펴보자. 차이가 가장 큰 것이 “폐쇄적”이었는데 남한주민에 대한 평균점수는 2.29점이었고, 북한주민에 대한 평균점수는 3.74였고, 양자의 차이는 1.38점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보통이다”가 3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남한주민은 남한주민 자신들이 그다지 폐쇄적이지 않지만 북한주민은 상당히 폐쇄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남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의 갭은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차이가 큰 것이 “개인주의적이다”(-1.18점)⁴, “개성을 존중한다”(-1.06점), “침략적이다”(0.96점), “허세가 강하다”(-0.8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⁴ <표 2>에도 나타나 있듯이 평균점수의 차이에 음(-)의 기호가 붙으면 해당 특성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의 평균점수가 낮고,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의 평균점수가 높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남한주민은 북한주민이 그다지 개인주의적이지 않은 반면, 남한주민은 상당히 개인주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음(-)의 기호가 붙지 않으면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의 평균점수가 높고,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의 평균점수가 낮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을 A로 설정하고,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을 B로 설정한 후에 A-B로 평균점수의 차이를 구했기 때문이다.

〈표 2〉 남한주민의 남·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24개 문항에 대한 비교
(단위: %, 점)

문항	평균 점수 단순 비교			T 검정 결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평균점수)A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 (평균점수)B	평균점수 차이 A-B	t	P
권위주의적이다	2.98	3.37	-0.39	-6.382	.000***
이기적 타산적이다	2.94	3.68	-0.74	-13.347	.000***
개인주의적이다	2.64	3.82	-1.18	-21.047	.000***
부지런하다	3.41	3.62	-0.21	-3.928	.000***
교활하다	2.77	3.01	-0.24	-4.257	.000***
친절하다	2.86	3.38	-0.52	-10.744	.000***
검소하다	3.50	2.82	0.68	13.292	.000***
협동 단결력이 강하다	3.66	3.12	0.54	9.504	.000***
질서의식이 강하다	3.35	2.98	0.37	6.239	.000***
순박하다	3.14	2.47	0.67	12.105	.000***
허세가 강하다	2.70	3.51	-0.81	-14.606	.000***
합리적이다	2.70	3.37	-0.67	-13.556	.000***
공격적이다	3.31	2.89	0.42	7.553	.000***
지배적이다	3.07	2.98	0.09	1.682	.093
주체성이 강하다	3.56	3.00	0.56	9.457	.000***
미개하다	2.66	2.01	0.65	10.728	.000***
침략적이다	2.98	2.02	0.96	16.274	.000***
실리적이다	3.05	3.55	-0.50	-9.342	.000***
음흉하다	2.72	2.61	0.11	1.866	.062
배타적이다	3.21	2.92	0.29	5.069	.000***
개성을 존중한다	2.39	3.45	-1.06	-18.835	.000***
폐쇄적이다	3.74	2.36	1.38	22.959	.000***
정이 많다	3.06	3.46	-0.40	-8.049	.000***
우매하다	2.65	2.29	0.36	6.523	.000***

*** p<0.001

이어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두 집단간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했다(표 3 참조). 그 결과 24개 문항 가운데 7개 문항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했고, 나머지 17개 문항에 대해서는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앞의 〈표 2〉에서 본 남한주민의 인식과는 확연하게 다른 양상이다. 즉 남한주민의 경우, 24개 문항중 22개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북한주민의 경우, 7개만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주민의 남한주민 특성에 대한 인식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 특성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거의 없었던 대표적인 문항은 “개성을 존중한다”(-0.01점)와 “합리적이다”(-0.01점)이었다. 즉 남한주민도 개성을 존중하며(3.44점), 다소 합리적이고(3.28점), 똑같이 북한주민도 개성을 존중하며(3.45점), 다소 합리적(3.29점)이라고 북한주민은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 다음은 “순박하다(-0.03점), “지배적이다”(-0.05점) 등의 순이었다.

〈표 3〉 북한주민의 남·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24개 문항에 대한 비교
(단위: %, 점)

문항	평균 점수 단순 비교			T 검정 결과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 (평균점수)A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평균점수)B	평균점수 차이 A-B	t	P
권위주의적이다	3.34	3.14	0.2	-2.458	.014*
이기적 타산적이다	3.52	3.19	0.33	-3.456	.001***
개인주의적이다	3.58	3.18	0.4	-3.909	.000***
부지런하다	3.72	3.85	-0.13	1.331	.184
교활하다	2.80	2.53	0.27	-2.885	.004**
친절하다	3.44	3.54	-0.1	1.119	.263
검소하다	3.28	3.36	-0.08	.969	.333
협동 단결력이 강하다	3.28	3.54	-0.26	2.580	.010*
질서 의식이 강하다	3.44	3.55	-0.11	1.134	.257
순박하다	3.25	3.21	0.04	-.476	.634
허세가 강하다	3.22	3.13	0.09	-1.057	.291
합리적이다	3.28	3.29	-0.01	.157	.875
공격적이다	3.00	3.11	-0.11	1.082	.280
지배적이다	2.99	3.04	-0.05	.521	.603
주체성이 강하다	3.33	3.44	-0.11	1.001	.317
미개하다	2.51	2.20	0.31	-3.537	.000***
침략적이다	2.29	2.10	0.19	-2.001	.046*
실리적이다	3.01	3.06	-0.05	.649	.517
음흉하다	2.56	2.49	0.07	-.713	.476
배타적이다	2.75	2.70	0.05	-.593	.553
개성을 존중한다	3.44	3.45	-0.01	.140	.889
폐쇄적이다	2.78	2.64	0.14	-1.362	.174
정이 많다	3.68	3.74	-0.06	.560	.576
우매하다	2.73	2.66	0.07	-.853	.394

* p<0.05, ** p<0.01, *** p<0.001

물론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도 존재한다. 문항별 평균점수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개인주의적이다”였는데 남한주민에 대한 평균점수는 3.58점이었고, 북한주민에 대한 평균점수는 3.18점이었고, 양자의 차이는 0.4점이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남한주민의 경우,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남한주민의 인식의 차이가 가장 컸던 문항의 평균 점수 차이는 1.38점이었다. 그리고 1점 이상 차이가 나는 문항은 모두 3개였다. 반면 북한주민의 경우, 1점 이상 차이가 나는 문항은 단 하나도 없고, 가장 큰 점수 차이가 0.4점에 불과했다. 요컨대 남한주민은 북한주민보다 남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의 개수도 훨씬 많고, 인식의 평균점수 차이도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을 살펴보기로 하자.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두 집단간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했다(표 4 참조). 그 결과 24개 문항 가운데 18개 문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6개는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상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한주민의 남북한주민 인식을 비교한 <표 2>와 북한주민의 남북한주민 인식을 비교한 <표 3>을 다시 불러올 필요가 있다. 즉 남북한주민간 상호인식에서 차이가 확인된 18개 문항 중에서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간에 차이가 확인되었고<표 2>,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간에도 차이가 확인된 <표 3> 문항, 즉 남북한 주민 모두 내집단과 외집단간 인식의 차이를 보인 문항은 6개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간에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고<표 2>,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간에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던 <표 3> 문항은 단 1개뿐이었다. 또한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간에만 차이가 발견된 <표 2> 문항은 무려 11개였다. 반면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간에만 차이가 발견된 문항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이런 상황을 간단히 <표 5>로 정리해 보았다.

〈표 4〉 남·북한주민의 상호 인식: 24개 문항에 대한 비교

(단위: %, 점)

	평균 점수 단순 비교			T 검정 결과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평균점수)A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 (평균점수)B	평균점수 차이 A-B	t	P
권위주의적이다	2.98	3.34	-0.36	-4.793	.000***
이기적 타산적이다	2.94	3.52	-0.58	-8.235	.000***
개인주의적이다	2.64	3.58	-0.94	-12.468	.000***
부지런하다	3.41	3.72	-0.31	-4.267	.000***
교활하다	2.77	2.80	-0.03	-.493	.622
친절하다	2.86	3.44	-0.58	-8.914	.000***
검소하다	3.50	3.28	0.22	3.249	.001*
협동 단결력이 강하다	3.66	3.28	0.38	5.031	.000***
질서 의식이 강하다	3.35	3.44	-0.09	-1.255	.210
순박하다	3.14	3.25	-0.11	-1.566	.118
허세가 강하다	2.70	3.22	-0.52	-7.285	.000***
합리적이다	2.70	3.28	-0.58	-9.247	.000***
공격적이다	3.31	3.00	0.31	4.024	.000***
지배적이다	3.07	2.99	0.08	1.125	.261
주체성이 강하다	3.56	3.33	0.23	2.796	.005**
미개하다	2.66	2.51	0.15	1.969	.049*
침략적이다	2.98	2.29	0.69	8.783	.000***
실리적이다	3.05	3.01	0.04	.639	.523
음흉하다	2.72	2.56	0.16	2.159	.031*
배타적이다	3.21	2.75	0.46	6.675	.000***
개성을 존중한다	2.39	3.44	-1.05	-15.322	.000***
폐쇄적이다	3.74	2.78	0.96	12.566	.000***
정이 많다	3.06	3.68	-0.62	-9.393	.000***
우매하다	2.65	2.73	-0.08	-1.132	.258

* p<0.05, ** p<0.01, *** p<0.001

〈표 5〉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 남한주민 및 북한주민의 차이에 의한 구분

구분		문항 개수	구체적인 문항들
남북한주민 간 상호인식에 차이가 있음	남북한 주민 모두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특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 있음	6	권위주의적이다. 이기적 타산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협동단결력이 강하다. 미개하다. 침략적이다.
	남북한 주민 모두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특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 없음	1	음흉하다
	남한 주민만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특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 있음	11	부지런하다. 친절하다. 검소하다. 허세가 강하다. 합리적이다. 공격적이다. 주체성이 강하다. 배타적이다. 개성을 존중한다. 폐쇄적이다. 정이 많다.
	북한 주민만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특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 있음	0	
	합 계	18	
남북한주민 간 상호인식의 차이가 없음.		6	교활하다. 질서외의식이 강하다. 지배적이다. 순박하다. 실리적이다. 우매하다.

2. 남북한 주민의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

남·북한주민의 남·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24개 문항에 대해 주성분 분석법과 베리맥스 회전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했다(〈표 6〉 ~ 〈표 10〉).

우선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에서는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6 참조).⁵ 요인 1은 “침략적이다,” “음흉하다,” “미개하다,” “공격적이다” 등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요인 2는 “협동 단결력이 강하다,” “검소하다” 등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 3은 “권위주의적이다,” “이기적/타산적이다” 등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 4는 “친절하다,” “정이 많다” 등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 5는 “실리적이다,” “개성을 존중한다” 등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중립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⁵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할 때 “주체성이 강하다” 등 2개 문항을 제외한 22개 문항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해 5개의 요인을 추출했다.

〈표 6〉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요인분석결과

	요 인				
	침략·음흉	협동·검소	권위·이기	친절·다정	실리·개인
침략적이다	.802				
음흉하다	.741				
미개하다	.714				
공격적이다	.705				
배타적이다	.668				
폐쇄적이다	.660				
지배적이다	.560				
교활하다	.501				
협동/단결력이 강하다		.775			
검소하다		.764			
부지런하다		.699			
질서의식이 강하다		.694			
권위주의적이다			.790		
이기적/타산적이다			.613		
허세가 강하다			.567		
친절하다				.637	
정이 많다				.619	
순박하다				.607	
실리적이다					.678
개인주의적이다					.599
개성을 존중한다					.598
합리적이다					.583
고유값	5.695	2.883	2.059	1.127	1.041
설명변량(%)	18.482	12.742	9.287	9.019	8.674

다음으로 남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에서는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7 참조).⁶ 요인 1은 “이기적/타산적이다,” “권위주의적이다” 등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요인 2는 “미개하다,” “침략적이다” 등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 3은 “협동단결력이 강하다,” “검소하다” 등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⁶ 남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할 때 24개 문항 모두를 가지고 분석을 실시해 5개의 요인을 추출했다.

〈표 7〉 남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 요인분석결과

	요 인			
	이기·개인	침략·공격	협동·친절	개성·합리
이기적/타산적이다	.797			
권위주의적이다	.730			
개인주의적이다	.725			
허세가 강하다	.680			
교활하다	.586			
지배적이다	.571			
미개하다		.780		
침략적이다		.770		
우매하다		.723		
음흉하다		.657		
폐쇄적이다		.604		
공격적이다		.523		
배타적이다		.472		
협동/단결력이 강하다			.713	
검소하다			.661	
질서의식이 강하다			.661	
친절하다			.659	
부지런하다			.636	
정이 많다			.629	
순박하다			.567	
주체성이 강하다			.442	
개성을 존중한다				.699
합리적이다				.690
실리적이다				.581
고유값	5.494	3.187	2.783	1.120
설명변량(%)	15.762	15.183	14.254	7.231

대체로 보아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 4는 “개성을 존중한다” 등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중립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에서는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8〉 참조).⁷ 요인 1은 “침략적이다,” “미개하다” 등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

⁷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할 때 “정이 많다” 등 6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18개 문항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해 5개의 요인을 추출했다.

체로 보아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 2는 “개인주의적이다,” “이기적/타산적이다” 등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 3은 “협동단결력이 강하다,” “부지런하다” 등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 4는 “친절하다” 등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 5는 “개성을 존중한다” 등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중립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 요인분석결과

	요 인				
	침략·미개	개인·타산	협동·근면	친절·검소	개성·합리
침략적이다	.836				
미개하다	.767				
음흉하다	.693				
폐쇄적이다	.580				
배타적이다	.577				
개인주의적이다		.837			
이기적/타산적이다		.788			
교활하다		.712			
협동/단결력이 강하다			.666		
부지런하다			.659		
주체성이 강하다			.595		
순박하다			.575		
친절하다				.787	
검소하다				.672	
질서 의식이 강하다				.473	
개성을 존중한다					.690
실리적이다					.656
합리적이다					.610
고유값	4.126	2.685	2.181	1.213	1.112
설명변량(%)	14.253	14.212	12.929	9.199	8.972

다음으로 북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에서는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9 참조).⁸ 요인 1은 “협동단결력이 강하다,” “순박하다” 등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⁸ 북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할 때 “지배적이다” 등 5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19개 문항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해 4개의 요인을 추출했다.

었는데 대체로 보아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 2는 “침략적이다,” “미개하다” 등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 3은 “이기적 타산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등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 4는 “개성을 존중한다” 등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중립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남북한주민의 남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결과(〈표 6〉~〈표 9〉)를 간단히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인식 2개, 긍정적 인식 2개, 중립적 인식 1개로 묶였다. 남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인식 2개, 긍정적 인식 1개, 중립적 인식 1개로 묶였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인식 2개, 긍정적 인식 2개, 중립적 인식 1개로 묶였다. 아울러 북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인식 2개, 긍정적 인식 1개, 중립적 인식 1개로 묶였다.

이처럼 남북한주민은 외집단에 대해서는 총 5개의 요인, 내집단에 대해서는 총 4개의 요인을 추출하는데 공통점을 보였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또한 남북한주민은 외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 2개, 긍정적 인식 2개, 중립적 인식 1개를, 내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 2개, 긍정적 인식 1개, 중립적 인식 1개를 추출하는데 역시 공통점을 보였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표 9〉 북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요인분석결과

	요 인			
	협동·순박	침략·폐쇄	이기·권위	친절·개성
협동/단결력이 강하다	.812			
순박하다	.737			
주체성이 강하다	.694			
질서의식이 강하다	.655			
정이 많다	.623			
검소하다	.556			
부지런하다	.529			
침략적이다		.789		
미개하다		.713		
폐쇄적이다		.667		
배타적이다		.648		
우매하다		.570		

	요 인			
	협동·순박	침략·폐쇄	이기·권위	친절·개성
이기적/타산적이다			.774	
개인주의적이다			.752	
권위주의적이다			.686	
허세가 강하다			.516	
친절하다				.662
개성을 존중한다				.637
실리적이다				.619
고유값	4.171	2.920	1.654	1.244
설명변량(%)	18.220	14.473	11.381	8.495

3. 남북한주민의 상호인식: 요인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T검정 결과

이제는 요인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남북한주민의 남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및 상호인식에 대해 통계적 분석을 실시해 보기로 한다. 다만 예컨대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남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이 요인분석을 할 때 다소 상이한 요인들로 묶여졌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한주민의 남·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기 위한 T검정을 위해서는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결과(5개 요인)를 기본틀(이하 ‘남→북의 틀’로 약칭)로 한 비교<표 10>와 남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결과(4개 요인)를 기본틀(이하 ‘남→남의 틀’로 약칭)로 한 비교<표 11>을 모두 다 수행할 필요가 있다.

<표 10>과 <표 1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남→북의 틀’에서는 5개의 요인 중 4개 요인이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남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에 부정적 인식 2개(침략음흉, 권위이기), 긍정적 인식 1개(협동검소), 중립적 인식 1개(실리개인)였다. 긍정적 인식 1개(친절다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남→남의 틀’에서는 4개 요인 모두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남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정적 인식 2개(이기권위, 침략공격), 긍정적 인식 1개(협동친절), 중립적 인식 1개(개성합리)였다.

평균점수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은 ‘남→북의 틀’과 ‘남→남의 틀’ 모두에서 중립적 인식이었다. 즉 전자에서는 ‘실리개인’(0.85점), 후자에서는 ‘개성합리’(0.74점)

이었다. 다음으로 평균점수 차이가 큰 것은 ‘남→북의 틀’에서는 부정적 인식 2개, 즉 ‘권위이기’(0.65점), ‘침략음흉’(-0.46점)이었다. 평균 점수가 가장 작은 것은 긍정적 인식, 즉 ‘협동검소’(-0.34점)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남→남의 틀’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인식은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남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간에 평균 점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고, 긍정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요컨대 남한주민의 내집단에 대한 인식과 외집단에 대한 인식간의 차이는 긍정적 인식보다 부정적 인식에서 상대적으로 요인의 개수도 많았고, 차이의 크기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 남한주민의 남·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비교: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결과(5개 요인)를 기본틀로 한 비교

요인 명	단순 평균 비교			T검정	
	남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A)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B)	평균의 차이 (B-A)	t	P
침략·음흉	2.60	3.06	-0.46	12.575	.000***
협동·검소	3.14	3.48	-0.34	8.609	.000***
권위·이기	3.52	2.87	0.65	-15.056	.000***
친절·다정	3.10	3.02	0.08	-2.475	.014*
실리·개인	3.55	2.70	0.85	-24.483	.000***

* p<0.05, ** p<0.01, *** p<0.001

〈표 11〉 남한주민의 남·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비교: 남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결과(4개 요인)를 기본틀로 한 비교

요인 명	단순 평균 비교			T검정	
	남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A)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B)	평균의 차이 (A-B)	t	P
이기·개인	3.39	2.85	0.54	14.307	.000***
침략·공격	2.44	3.04	-0.60	-16.276	.000***
협동·친절	3.11	3.32	-0.21	-6.787	.000***
개성·합리	3.46	2.72	0.74	19.448	.000***

* p<0.05, ** p<0.01, *** p<0.001

이제는 북한주민의 남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이 요인분석을 할 때 다소 상이한 요인들로 묶여졌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T검정을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요인 분석결과(5개 요인)를 기본틀(이하 ‘북→남의 틀’로 약칭)로 한 비교(표 12)와 북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결과(4개 요인)를 기본틀(이하 ‘북→북의 틀’로 약칭)로 한 비교(표 13)을 모두 다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서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와 사뭇 상이한 상황이 전개된다. 즉 <표 12>과 <표 1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북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표 12〉 북한주민의 남·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비교: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결과(5개 요인)를 기본틀로 한 비교

요인 명	단순 평균 비교			T검정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A)	북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B)	평균의 차이 (A-B)	t	P
침략·미개	2.58	2.43	0.15	2.760	.006**
개인·타산	3.30	2.97	0.33	3.866	.000***
협동·근면	3.40	3.51	-0.11	-1.337	.183
친절·검소	3.39	3.48	-0.09	-1.463	.145
개성·합리	3.24	3.27	-0.03	-.485	.628

* p<0.05, ** p<0.01, *** p<0.001

〈표 13〉 북한주민의 남·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비교: 북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결과(4개 요인)를 기본틀로 한 비교

요인 명	단순 평균 비교			T검정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A)	북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B)	평균의 차이 (B-A)	t	P
협동·순박	3.43	3.53	-0.10	1.404	.162
침략·폐쇄	2.61	2.46	0.15	-2.945	.004**
이기·권위	3.42	3.16	0.26	-3.965	.000***
친절·개성	3.30	3.35	-0.05	.982	.327

* p<0.05, ** p<0.01, *** p<0.001

인식과,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북→남의 틀’에서도, ‘북→북의 틀’에서도 모두 다 부정적 요인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긍정적 요인과 중립적 요인은 단 하나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즉 북한주민은 내집단에 대한 인식과 외집단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긍정적 인식과 중립적 인식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로지 부정적 인식의 경우에만 발견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다음에는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을 직접 비교해 보기로 하자. 여기에서도 T검정을 위해서는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결과(5개 요인)를 기본틀(이하 ‘남→북의 틀’로 약칭)로 한 비교(표 14)와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결과(5개 요인)를 기본틀(이하 ‘북→남의 틀’로 약칭)로 한 비교(표 15)를 모두 다 수행해야 한다. 그 결과 전자의 경우와 후자의 경우 공히, 5개의 요인 중 4개의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4개의 요인 중 부정적 인식이 2개, 긍정적 인식이 1개, 중립적 인식이 1개였다. 전자 후자 모두 긍정적 요인 1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요컨대 요인분석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특성을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 중립적 인식으로 구분해서 본 결과, 남북한 주민은 상대방에 대한 인식에서 긍정적 인식에서 보다는 부정적 인식에서 인식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런 점은 남한주민이나 북한주민이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남북한주민의 상호인식: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결과를 기본틀로 한 비교

요인 명	단순 평균 비교			T검정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A)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B)	평균의 차이 (A-B)	t	P
침략·미개	2.58	3.06	-0.48	-5.772	.000***
개인·타산	3.30	2.78	0.52	6.528	.000***
협동·근면	3.40	3.44	-0.04	-4.485	.628
친절·검소	3.39	3.24	0.15	2.757	.006**
개성·합리	3.24	2.72	0.52	8.854	.000***

* p<0.05, ** p<0.01, *** p<0.001

〈표 15〉 남북한주민의 상호인식: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결과를 기본틀로 한 비교

요인 명	단순 평균 비교			T검정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A)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B)	평균의 차이 (B-A)	t	P
침략·음흉	2.71	3.06	-0.35	4.371	.000***
협동·검소	3.43	3.48	0.05	.789	.431
권위·이기	3.36	2.87	-0.49	-8.165	.000***
친절·다정	3.46	3.02	-0.44	-7.928	.000***
실리·개인	3.33	2.70	-0.63	-11.783	.000***

* p<0.05, ** p<0.01, *** p<0.001

4. 남북한주민의 상호인식의 변인별 차이 비교

이제는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요인분석한 결과 도출된 5개 요인에 대해 각 변인별로 T검정 및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16〉과 같다.

우선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타났다. 성별은 긍정적 인식 1개(협동·검소)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여성>남성, $p<.001$)을 나타냈다. 연령대는 부정적 인식 2개, 긍정적 인식 1개, 중립적 인식 1개에서 차이를 나타냈는데 부정적 인식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 또한 4개의 인식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부정적 인식에서는 미혼이 기혼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치적 입장은 부정적 인식 1개(침략·음흉)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이 또한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구별되는 점이다. 성별, 학력, 당원여부 등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령과 정치적 입장에서만, 그것도 각각 1개의 인식(요인)에 대해서만 집단별 차이를 보였다.

〈표 16〉 남북한주민의 상호인식의 변인별 차이 비교: T검정 및 ANOVA 결과

		각 요인의 변인별 차이 내역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변인	침략·음흉	협동·검소	권위·이기	친절·다정	실리·개인
	성별	-	여성>남성	-	-	-
	연령대	20·30대> 40·50대> 60대이상	60대이상> 40·50대> 20·30대	20·30대> 40·50대> 60대이상		60대이상> 40·50대> 20·30대
	학력	-	-	-	-	-
	경제적 계층	-	-	중간층> 하층> 상층	-	-
	결혼여부	미혼> 결혼> 기타	결혼> 기타> 미혼	미혼> 기타> 결혼	-	기타> 결혼> 미혼
	정치적 입장	중도> 보수> 진보	-	-	-	-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	변인	침략·미개	개인·타산	협동·근면	친절·검소	개성·합리
	성별	-	-	-	-	-
	연령대	-	-	-	60대이상> 40·50대> 20·30대	-
	학력	-	-	-	-	-
	경제적 계층	-	-	-	-	-
	결혼여부	-	-	-	-	-
	정치적 입장	-	-	-	-	진보> 보수> 중도

5. 남북한주민의 태도: 사회적 관계

이제는 남북한 주민의 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관계로서 여기서는 결혼상대, 세입자, 친구, 동료 등 4가지 범주를 다루기로 한다. 〈표 17〉에 나타나 있듯이 남북한주민의 상대방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대한 태도는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모든 범주에서 상대방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대해 남한주민은 북한주민보다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남북한주민간 태도의 차이가 가장 큰 범주는 역시 결혼상대였다. 결혼상대로 관계를 맺는 데 대한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태도는 2.79점이었고,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태도는 3.87점으로서 1.08점이나 차이가 났다. 특히 남한주민은 “보통이다”는 3점을 약간 밑돌았고, 북한주민은 3점을 크게 웃돌았다는 점 또한 눈에 띈다. 그 다음으로 차이가 큰 것은 친구(0.56점), 동료(0.44점), 세입자(0.21점)의 순이었다. 아울러 남북한 주민 모두 친구, 동료, 세입자로 관계를 맺는 데 대해 3점을 약간 또는 다소 웃돌았다.

〈표 17〉 남북한 주민의 상대방에 대한 태도 비교: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 범주	평균점수 단순비교			T검정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태도(A)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태도(B)	평균의 차이 (A-B)	t	P
결혼상대	2.79	3.87	-1.08	-15.151	.000***
세입자	3.06	3.27	-0.21	-2.637	.009**
친구	3.28	3.84	-0.56	-7.814	.000***
동료	3.52	3.96	-0.44	-6.652	.000***

** p<0.01, *** p<0.001

남북한 주민이 상대방 집단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대한 태도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변인별로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T검정 및 ANOVA를 실시한 결과가 아래의 〈표 18〉에 정리되어 있다.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태도는 성별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결혼상대, 세입자, 친구(3개 범주)로 관계를 맺는 데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연령과 정치적 입장으로 2개의 범주에 대해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로는 결혼상대, 세입자 관계에 대해 40·50대>60대 이상>20·30대의 순이었다. 정치적 입장으로는 결혼상대, 친구 관계에 대해 진보>중도>보수의 순이었다.

이와는 달리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태도는 연령대별로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세입자 관계에 대해서는 20·30대>40·50대>60대 이상의 순이었고, 친구 및 동료에 대해서는 40·50대>20·30대>60대 이상의 순을 나타냈다. 연령대 다음으로는 결혼 여부가 많은 차이를 나타냈는데 친구 및 동료 관계에 대해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표 18〉 남북한주민의 상대방에 대한 태도의 변인별 차이 비교:
T검정 및 ANOVA 결과

		각 범주의 변인별 차이 내역			
		결혼상대	세입자	친구	동료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태도	성별	남성>여성	남성>여성	남성>여성	-
	연령대	40·50대> 60대이상> 20·30대	40·50대> 60대이상> 20·30대	-	-
	학력	-	-	-	-
	경제적 계층	-	-	-	-
	결혼여부	결혼> 기타> 미혼	-	-	-
	종교 유무	-	-	-	-
	정치적 입장	진보> 중도> 보수	-	진보> 중도> 보수	-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태도	성별	-	남성>여성	-	-
	연령대	-	20·30대> 40·50대> 60대이상	40·50대> 20·30대> 60대이상	40·50대> 20·30대> 60대이상
	학력 (재복시)	소학교> 대학교> 기타> 고등중학교	-	-	-
	경제적 계층 (재복시)	-	-	-	-
	결혼여부	-	-	미혼> 결혼> 기타	미혼> 결혼> 기타
	정치적 입장	보수> 진보> 중도	-	-	-
	당원 여부	-	-	-	-

6. 남북한주민의 인식과 태도의 관계: 회귀분석 결과

이제는 앞에서 보았던 남북한주민들이 상대방 집단에 대해 가지는 여러 인식들이 상대방 집단에 대해 가지는 태도(사회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표 19〉는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태도(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식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⁹ 상대집단, 즉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5가지 요인 중 부정적 인식 1개, 긍정적 인식 1개가 사회적 관계의 모든 범주에 대해 영향을 미치며, 영향을 미치는 정도(회귀계수의 크기)는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인식 중 ‘침략·음흉’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권위·이기’는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긍정적 인식 중 ‘친절·다정’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협동·검소’는 그러지 않았다.

〈표 19〉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태도(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식들: 회귀분석 결과(β)

독립변수	종속변수			
	가까운 가족의 결혼상대	본인집의 세입자	단짝 친구	직장 동료
상대집단에 대한 인식1: 침략·음흉	-.288***	-.305***	-.265***	-.249***
상대집단에 대한 인식2: 협동·검소	-.015	.009	-.071	-.027
상대집단에 대한 인식3: 권위·이기	-.009	.032	.024	-.034
상대집단에 대한 인식4: 친절·다정	.214***	.235***	.267***	.240***
상대집단에 대한 인식5: 실리·개인	.057	.088*	.001	.022
R ²	.175***	.209***	.165***	.191***

* p<0.05, ** p<0.01, *** p<0.001

〈표 20〉은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태도(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식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와 매우 대조적이다. 무엇보다도 4개의 사회적 관계 가운데 3개(결혼상대, 세입자, 단짝친구)는 회귀식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았다. 사회적 관계라는 태도와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 유일

⁹ 〈표 19〉와 〈표 20〉의 회귀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관계수, 공차한계, 상승분산(VIF)을 구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게 '직장 동료'라는 사회적 관계만 회귀식이 성립했다. 남한주민의 경우, 4개의 사회적 관계 모두 회귀식이 성립한 것과는 판이한 결과이다.

즉 북한주민들은 남한주민들과 결혼상대, 세입자, 단짝친구 등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남한주민들의 특성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요컨대 집단으로서의 남한주민의 특성에 대한 인식 또는 고정관념이 남한주민과 결혼상대, 세입자, 단짝친구 등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유일하게 직장 동료로서 관계를 맺는 데만 인식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 중 부정적 인식인 '침략·미개'와 '개인·타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0〉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태도(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식들: 회귀분석 결과(β)

독립변수	종속변수			
	가까운 가족의 결혼상대	본인집의 세입자	단짝 친구	직장 동료
상대집단에 대한 인식1: 침략·미개	-.114	-.047	-.149	-.176*
상대집단에 대한 인식2: 개인·타산	.057	.137	.116	.181*
상대집단에 대한 인식3: 협동·근면	.003	.177	.101	.147
상대집단에 대한 인식4: 친절·검소	.068	-.020	.029	.010
상대집단에 대한 인식5: 개성·합리	.084	-.014	-.075	-.038
R ²	.029	.027	.034	.051*

* p<0.05, ** p<0.01, *** p<0.001

IV. 맺음말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남북한 주민의 특성에 관한 24개 문항 가운데 18개 문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6개는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남북한주민 간 상호인식에서 차이가 확인된 18개 문항 중에서 남한주민 북

한주민 공히 내집단과 외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보인 문항은 6개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남한주민의 경우에서만 내집단과 외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발견된 문항은 무려 11개였다. 반면 북한주민의 경우에서 내집단과 외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발견된 문항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요컨대 남북한주민이 상대방의 특성에 대해 서로 인식하는, 즉 상호인식에서는 전체 문항(24개)의 7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북한 주민의 특성에 관한 상호인식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남북한 주민 양쪽의 인식에 기인하지만 북한주민의 인식체계보다는 남한주민의 인식체계에 기인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어느 집단이나 내집단에 대한 인식과 외집단에 대한 인식의 격차는 존재한다. 하지만 사람의 특성에 관한 한, 내집단에 대한 인식과 외집단에 대한 인식의 격차는 북한주민(북한이탈주민)보다는 남한주민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두 집단간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남한주민의 경우, 24개 문항중 22개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북한주민의 경우, 7개만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한주민의 경우,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남한주민의 인식의 차이가 가장 컸던 문항의 평균 점수 차이는 1.38점이었다. 그리고 1점 이상 차이가 나는 문항은 모두 3개였다. 반면 북한주민의 경우, 1점 이상 차이가 나는 문항은 단 하나도 없고, 가장 큰 점수 차이가 0.4점에 불과했다. 요컨대 남한주민은 북한주민(북한이탈주민)보다 남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의 개수도 훨씬 많고, 인식의 평균점수 차이도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4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은 긍정적 인식 2개, 부정적 인식 2개, 중립적 인식 1개 등 총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남한주민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부정적 요인 2개, 긍정적 요인 1개, 중립적 요인 1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반면 북한주민의 경우, 부정적 요인 2개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남한주민의 내집단에 대한 인식과 외집단에 대한 인식간의 차이는 긍정적 인식(1개)보다 부정적 인식(2개)에서 상대적으로 요인의 개수도 많았고, 차이의 크기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북한주민은 내집단에 대한 인식과 외집단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긍정적 인식과 중립적 인식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로지 부정적 인식의 경우에만 발견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남한주민이든 북한주민이든 상대방에 대한 인식에서 긍정적 인식에서보다는 부정적 인식에서 인식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컨대 집단에 대한 인식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내/외집단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북한주민보다는 남한주민이 상대적으로 컸지만, 상대방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국한시켜 보면 내/외집단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큰 것은 남한주민이나 북한주민이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타났다. 예컨대 결혼 여부, 연령대 등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 반면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대조를 이루었다.

한편 남북한 주민이 상대방 집단과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로서 결혼상대, 세입자, 친구, 동료 등 4가지 범주를 다루었다. 남북한주민들은 상대방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대한 태도의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모든 범주에서 상대방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대해 남한주민은 북한주민보다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남북한주민간 태도의 차이가 가장 큰 범주는 역시 결혼상대였다.

또한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태도(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식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대집단, 즉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5가지 요인 중 부정적 인식 1개, 긍정적 인식 1개가 사회적 관계의 모든 범주에 대해 영향을 미치며, 영향을 미치는 정도(회귀계수의 크기)는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태도(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식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사회적 관계 가운데 3개(결혼상대, 세입자, 단짝친구)는 회귀식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았다. 사회적 관계라는 태도와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

요컨대 상대집단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관계에 대해 남한주민과 북한주민(북한 이탈주민)을 비교해 보면 상대집단의 특성에 관한 인식이 상대집단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대한 태도에 남한주민의 경우가 북한주민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주민(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의 특성에 대한 인식이 남한주민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대한 태도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을 비교해 보면 상대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는 양쪽의 인식 격차가 거의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보아서는 양쪽의 인식 격차가 결코 작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내/외집단에 대한 인식의 격차는 북한주민보다 남한주민이 훨씬 컸다. 이는 무엇보다도 조사대상인 북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이며, 남한주민도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거의 중첩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계 자체의 특성 및 관계를 맺는 주체들의 특성에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이주민, 경계인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있으며,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 제출: 4월 28일 ■ 심사: 5월 23일 ■ 채택: 6월 5일

참고문헌

- 김혜숙·오승섭. “북한 사람에 대한 대학생과 일반인의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 비교.” 『심리과학』, 제8권 1호, 1999.
- 김혜숙.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6권 2호, 2000.
- _____.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6권 1호, 2002.
- 윤인진·채정민.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인식』,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 이우영·구갑우·양문수·윤철기·이수정. 『분단된 마음 잇기: 남북의 접촉지대』,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6.
- 전우영·조은경.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4권 1호, 2000.
- Bogardus, E.S. “Measuring social distances.”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9, 1925.

Abstract

A Study on Mutual Awareness of Resid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Moon-Soo Yang, Woo Young Lee, Ha Yeon Lee

This article aims to systematically grasp and organize mutual recogni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is problem is addressed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using survey results of resid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However, it is difficult to directly investigate North Koreans based on current circumstances, so we will replace them with investiga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Survey results show mutual recogni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is very different. These differences are due to the perception of South Koreans rather than that of North Korean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beings, the gap between the perception of the inner group and the perception of the outer group was relatively larger in the South than in the North. But when the negative perception of the other group is limited, North and South did not differ.

In addition, in recognition of the mutual perception of the resid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perception of the North Korean inhabitants of South Koreans was not clear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variables, but to some extent. On the other hand,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about South Korean residents was contrasted by the fact that there were few differences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When comparing the residents of North Korea with those of the other groups, the percep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ponent group is much more influential on the attitude toward social relations with the opponent group than the North Koreans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n residents' percep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ns did not affect their attitudes toward social relations with South Koreans.

Key Words: Residents of South Korea, Residents of Nor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Mutual Awareness, Attitude, Social Relations